

제휴카드·전세기 운항·굿즈... 항공사, 현금창출 안간힘

대한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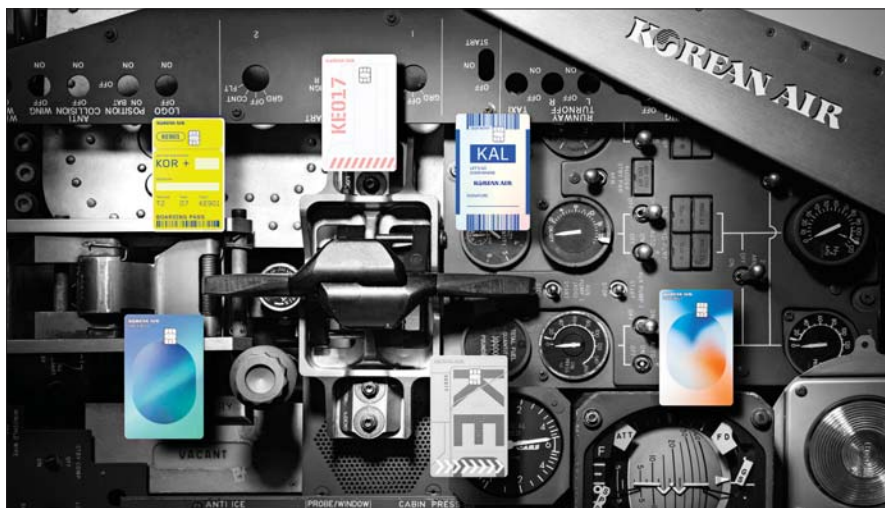
현대카드와 대한항공카드 출시

아시아나

교민 수송 등 전세기 운항 총력

제주항공

팬수 캐릭터 활용해 굿즈 마련



대한항공의 대한항공카드.

/대한항공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나섰다.

6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 최초 항공사 신용카드인 '대한항공카드'를 출시했다. 대한항공은 자사의 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비행기가 최대 90% 가까이 멈춰서면서 유동성 위기에 놓이자 새로운 방법으로

모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운항 노선이 줄어든 것은 물론, 수요도 대폭 줄면서 심각한 '현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은 카드를 보유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더블 마일리지 적립 이벤트'를 7월 31일까지 응모받아 실시한다. 6월과 7월에 응모한 고객은 각각 7

월과 8월 카드 사용금액이 더블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또한 카드 보유 고객 중 카드 발급일 이후부터 추첨일 이전까지 누적 사용 금액이 50만원을 넘어 응모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항공권과 1만 마일리지 등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도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국제선을 운항할 수 없자, 교민

수송 등을 위한 '전세기' 수요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거점을 둔 글로벌 국내 기업과 교민, 유학생들이 출·입국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전세기 운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6월 한달간 아시아나항공은 전세기 운항으로 총 6930명을 수송했으며, 지난 3월 이후 입국이 불허됐던 베트남 나트랑 공항에 지난 6월 23일 현대미포조선 기술진을 태워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외국인의 입국 허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현재 유일하게 국제선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항공도 항공기 운항만으로 버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제주항공은 자사의 친환경 홍보모델로 활동 중인 '팬수'를 활용한 모형비행기와 기획상품(굿즈) 출시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7월부터 팬수 모형비행기와 포토카드, 볼펜, 핀버튼, 스티커 등 상품을 제작해 기내 및 AK몰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AK몰에서

사전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주항공의 국제선·국내선 항공권과 팬수가 직접 사인한 팬수 모형비행기, JJ라운지 이용권 등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 항공사가 국내선도 많이 늘리고 있다"면서도 "국내선 운항이 실질적으로 수익성은 없다. 비행기가 뜰 때 고정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근대 항공기를 한 번 띄울 때마다, 변동비만 커버되면 어떻게든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낫다. 당장 유동성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내선을 더 많이 띄우려고 하는 분위기"라며 "국제선의 경우, 올 여름은 거의 힘들지 않을까 보여진다. 현지에서 열어줘야 하고, 국내에서 14일 자가격리 완화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국제선을 나가기가 아무래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KT, 車 부품사에 5G 스마트팩토리 코봇 상용화

협동로봇과 작업 '척척'... 불량 ↓ 생산성 ↑

근로자와 함께 어려운 동작 작업
생산정보, 클라우드 통해 수집·관리



충북 제천에 있는 박원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KT 5G 스마트팩토리 코봇과 함께 작업하고 있다. /KT

KT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박원에 5G 스마트팩토리 코봇(Cobot, 협동로봇)을 구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박원은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초정밀 강구를 생산하는 제조사로, KT 5G 스마트팩토리 코봇의 첫 상용 도입 회사가 됐다.

KT는 약 2만3000㎡의 체천 박원 공장에 기업전용 5G 네트워크와 스마트팩토리 코봇을 구축하고,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KT 클라우드 기반 팩토리 메이커스 플랫폼에서 실시간 관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에 구축된 협동로봇이 근로자와 함께 어려운 동작을 작업해 근로 피로도를 줄이고, 오류와 불량 발생을 낮춰 작업 리드타임이 줄어드는 등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제

품의 정확한 중량을 측정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기존엔 근로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집계하던 생산정보를 KT 클라우드 기반 팩토리 메이커스 플랫폼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한다.

박원의 패키징 공정에 KT 5G 스마

트팩토리를 도입한 결과, 기존 작업 방식대로 했을 때 시간당 225박스를 생산했던 공정이 KT 5G 스마트팩토리 코봇을 도입하자 시간당 313박스로 증가했다. 또 박스당 작업 소요시간도 16초에서 11.5초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인 기자 silkni@

중진공, 정책자금 평가체계 中 小 企 위주 개편

3년 연속 300만 달러 이상 수출 기업
정책자금심사서 기술사업성 평가 면제



최근 3년 연속 300만 달러 이상 수출한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더욱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들에겐 정책자금 심사시 기술사업성 평가를 면제해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중진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책자금 평가 체계를 수출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일부터 수출 하이패스트

랙을 도입하고 수출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기술사업성 평가 기준에서 수출 실적에 대한 평가 영향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지원 성과가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사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출 버팀목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을 위해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임금조사

생산직 평균일급 9만5837원

올해 상반기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산노임(일급)이 1년전에 비해 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1400 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 발표한 '2020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에 따르면 130개 조사직종 평균 일급은 9만583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3월 기준) 평균 일급은 9만4631원이었다.

/김승호 기자

국내산업 생산·투자 5개월째 하락

재난지원금 효과에 소비는 상승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산업생산이 5개월째 하락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11년 4개월만에 최저다. 다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비는 2개월 연속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전월대비 1.2% 감소했다. 지난해 9월(-0.2%) 이후 증가하다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 5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제조업 평균가동률 11년 4개월만에 최저
소매판매액지수 전월비 4.6% 상승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6.5 기록

분야별로 광고업 생산이 전달보다 6.7%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도체는 10.8% 증가했으나 해외 판매수 위축에 따라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생산 감소로 자동차는 21.4%나 줄었다.

자동차 관련 금형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등의 생산 감소로 기계장비 생산도 12.9% 감소했다. 지난달 자동차생산지수는 63.4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로 반등했던 3월(93.6)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고, 2009년 5월(60.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6.9% 감소했다. 반도체, 기타운송장비, 의약품 등이 증가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이 감소했다.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을 의미하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4.6%포인트 하락한 63.6%로 11년 4개월 전인 2009년 1월(62.8%) 이후 최저치다.

제조업 출하지수는 90.0으로 전월보다 6.6% 감소해 2010년 3월(89.3%) 이후 가장 낮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은 128.6%로 전월보다 8.6%포인트 상승, 1998년 8월(133.2%) 이후 21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섬유·의복·신발 및 가죽 제품 소매업, 생산 용품 도매업 중심으로 소매가 3.7% 증가했고, 숙박·음식점 등도 전월대비 14.4% 증가했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에 따라 전월 대비 4.6% 상승해 코로나19 발생 전 수준을 회복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7.6%), 의복 등 준내구재(10.9%),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0.7%) 판매가 모두 증가했다.

소매업태별로 대형마트(-10.6%), 면세점(-0.5%)은 줄었으나 전문소매점(10.5%), 승용차·연료소매점(7.7%), 무점포소매(4.9%), 백화점(4.4%), 슈퍼마켓·잡화점(2.2%), 편의점(3.7%)은 늘었다. 재난지원금 효과로 슈퍼마켓·잡화점은 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투자는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16.1%) 및 정밀기기 등 기계류(-1.7%) 투자가 줄어 전월보다 5.9% 감소했다. 지난 1월(-6.8%)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도 토목(-8.5%), 건축(-2.4%) 공사 실적이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로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해 1999년 1월(96.5)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현재 굉장히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용수 기자 hys@